

탈북주민의 가치관, 적응도 및 삶의 만족도

정 권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jungk@kdischool.ac.kr
최창용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cychoi@kdischool.ac.kr

I. 서론

‘탈북’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거지나 직장을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내포한다. 정상적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가 기제들로부터의 탈출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탈북 당사자로 하여금 탈북 이후에는 그러한 위험과 반비례하는 삶의 조건의 변화 혹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기대하도록 한다.

탈북민의 남한 유입은 1990년대 중반 최악의 경제난과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매년 증가했는데, 2009년의 경우 한 해에만 2,500명이 넘는 탈북민이 입국하였고 2016년 3월 현재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총 29,117명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을 정점으로 그 수가 매해 1,000명 전후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2017년에는 30,000명이 넘는 탈북민이 남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¹⁾ 탈북자 수가 늘면서 탈북 동기의 변화도 관찰된다. 예컨대 초기 탈북자들의 주요 탈북 동기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한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생존 기제 차원의 ‘탈출’이었다면, 최근의 탈북 경향은 일부이기는 하나 보다 나은 삶과 자녀 교육을 위한 ‘이주’의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난민’에 준하는 인도적 동기나 정치·사상적 요인으로 인한 탈북에서 최근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탈북자 수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권수현, 20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2013; 정정애 외, 2013).

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접속일: 2016. 9. 10).

누적 탈북민 수가 급증한 2000년대 초부터는 탈북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제언 관련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노동, 교육, 여성, 보건, 복지 등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탈북민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주체의 중복과 연구방법론의 엄밀성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최대석·박영자, 2011), 이들 국책연구기관이 제공한 정책보고서는 탈북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일별해 보면, 크게 사회정착 지원정책 및 관련 제도 연구(김화순·최대석, 2011; 이금순 외, 2004), 탈북민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과 노동시장 편입(선한승 외, 2005; 박성재 외, 2011; 박호성, 2004; 윤여상, 2001), 정신건강 및 심리 연구(엄태완, 2007; 전우택, 2007; 전우택 외 2010, 2011), 탈북 청소년과 탈북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남북하나재단 2014; 정진화·손상희·이주관 2013),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 연구(남궁찬·김예란, 2016)도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여전히 대다수 탈북자들이 탈북 당시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석향, 2012; 박종철 외, 2015; 손애리·이내영, 2012; 전우택, 2007; 정정애 외, 2013; 최영아·이주용·김정규, 2009). 20여 년 전 탈북민을 대상으로 분석했던 비교적 초기 연구물(이영선·전우택, 1996)에서 강조했던 문제점, 특히 남한 사회 적응 부분에서는 특기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탈북민 수 증가와 함께 탈북의 동기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남한 사회에 대한 기대 수준, 탈북 전 북한 내에서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차이와 남한 사회로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개선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이탈주민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향후 남북통합 시대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관이, 남한 사회로 이주한 후의 사회 적응성 및 궁극적으로 남한 사회에서의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이 스스로와 남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남한 사회 적응 혹은 재사회화가 낮은 수준에서 관찰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탈북민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재사회화에 성공하여 향후 남북통합 시기에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1. 연구 설문, 주요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2003년 이후에 탈북한 20세 이상 탈북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표본 추출은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가치관, 적응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로 분류된다. 먼저 탈북자의 가치관은 일반적인 가치관 조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치관 관련 문항들을 기초로 하여 탈북민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가치관들을 국가 차원, 사회 차원, 그리고 개인 차원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후 6개의 세부 가치관을 선정했다. 국가 차원의 가치관으로는 국가지향성을 선정하였으며, 측정 scale은 Stellmacher and Petzel(2005)의 Group Authoritarianism Scale에서 차용하였다. 사회 차원의 가치관으로는 사회지향성(communal orientation)과 가족지향성(family orientation)을, 개인 차원의 가치관으로는 전통지향성(tradition orientation), 창의혁신성(entrepreneurial spirit orientation), 물질추구성(materialism)을 선정했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은 Kau *et al.*(2004)이 사용한 scale을 차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적응성도 가치관과 유사하게 체제와 관련된 구조적체제 수준(macro level)의 적응성, 사회적 수준(mezo level)의 적응성, 그리고 개인 수준(micro level)의 적응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적응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소득, 일자리, 소비 생활, 문화와 여가 생활, 건강 상태, 사회참여활동, 그리고 주거 환경 등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영역들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의 조사 영역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통계청, 2014; 2015). 이에 더하여 가치관, 적응성, 그리고 만족도의 차이를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는 설문조사 원칙에 의거하여 성별, 나이 그리고 남한 거주 기간의 세 가지 변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 연구 결과

2-1. 탈북민의 가치관

가. 국가지향성

국가지향성은 총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3개 문항은 국가의 규율에 관한 문항들이고 2개 문항은 국가의 지도자에 관한 문항들이다(표 1 참조). 먼저 국가의 규율에 대해서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규율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0.2% 동의: 문항 D, 84.8% 동의: 문항 A), 국가규율을 어겼을 경우 처벌 또한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83.5% 동의: 문항 B). 하지만 국가 지도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그 지도자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응답 비율이 나왔다(54.7% 동의: 문항 C, 45.9% 동의: 문항 F). 이는 국가라는 체제의 규제는 대부분 인정하고 순응하지만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존경심이나 복종심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성별이나 남한 체류 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표 2 참조).

〈표 1〉 가치관: 국가지향성

항목				보통 이다				χ^2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국가의 구성원은 소속된 국가의 규율 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84.8	52.3	32.5	9.8	5.4	5.0	0.5	963.7**
B. 국가의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은 엄하 게 처벌받아야 한다.	83.5	47.9	35.5	11.6	5.0	4.4	0.6	865.2**
C. 국가의 구성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국가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라야만 한다.	54.7	22.3	32.4	29.0	16.3	13.6	2.9	290.7**
D. 국가의 구성원은 소속된 국가의 규칙 을 항상 따라야만 한다.	70.2	30.5	39.7	20.4	9.4	8.5	0.9	502.8**
E. 국가의 규범에 반대하는 구성원은 항 상 그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73.3	34.0	39.3	19.1	7.6	6.5	1.1	559.2**
F. 국가 지도자의 명령은 항상 복종해야 만 한다.	45.9	17.4	28.5	28.0	26.0	18.1	7.9	147.9**

주: *p<.05, **p<.01(x²-test 결과는 5점 척도 분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임).

〈표 2〉 국가지향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차이

항목	전체	성별			연령						남한 체류 기간			
		남자	여자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	5년 이하	6~10년	10년 이상	F
	사례수	210	800		176	237	337	178	82		283	450	277	
A	4.31	4.27	4.32	0.68	4.15 (a)	4.27 (ab)	4.35 (b)	4.40 (b)	4.41 (b)	2.55**	4.41	4.30	4.23	2.79
B	4.26	4.18	4.28	2.15	4.06 (a)	4.22 (ab)	4.35 (b)	4.30 (b)	4.33 (b)	3.71**	4.26	4.23	4.30	0.53
C	3.58	3.53	3.59	0.55	3.18 (a)	3.35 (a)	3.69 (b)	3.81 (b)	4.15 (c)	19.1**	3.57	3.54	3.65	0.99
D	3.90	3.86	3.92	0.51	3.64 (a)	3.79 (ab)	3.96 (bc)	4.04 (c)	4.27 (d)	11.8**	3.95	3.84	3.96	1.68
E	3.99	3.98	3.99	0.02	3.74 (a)	3.90 (ab)	4.04 (bc)	4.12 (c)	4.23 (c)	5.98**	4.01	3.95	4.02	0.54
F	3.29	3.16	3.33	1.16	2.82 (a)	3.03 (a)	3.36 (b)	3.65 (c)	4.04 (d)	24.4**	3.25	3.30	3.34	0.43

주: 1) +A-F는 테이블 1-1에 있는 항목을 의미함. 평균값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2) *p<.05, **p<.01(각 인구통계학적 변인 내의 그룹별 차이는 Duncan Test를 이용한 Posthoc Analysis의 결과임. 그룹 간 비교의 전체 유의수준을 5%로 유지한 상황에서 동일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상이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의 평균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표시함).

나. 사회지향성

사회지향성(communal orientation)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대비하는 문항과 기부, 자원봉사 그리고 환경 보존 노력 등 사회 중심의 활동 여부에 관한 총 4개의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3 참조). 탈북민들의 사회지향성은 사회 전체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앞선다는 점(53% 동의: 문항 A)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69.8% 동의: 문항 C), 기부에 참여할 의사(37.5% 동의: 문항 B)와 더 비싼 친환경 제품 구입의사(39.6% 동의: 문항 D)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민들의 사회지향성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즉, 기본적인 사회지향성 측면(사회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앞서는 점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의도)에서는 매우 높은 성향을 보이나, 자본주의체제와 관련된 사회지향성 측면(기부활동 및 친환경노력의도)에서는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 이러한 이원성은 탈북민들이 남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사회지향성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간에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으나(표 4 참조),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앞서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문항 A), 환경 보존을 위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문항 D).

〈표 3〉 가치관: 사회지향성

항목	가치관			보통 이다	가치관			χ^2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53.0	16.8	36.1	30.7	16.3	13.1	3.3	359.9**
B. 나는 종종 좋은 일에 기부를 하는 편이다.	37.5	8.9	28.6	36.9	25.5	22.2	3.4	386.4**
C. 나는 기회가 된다면 무료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	69.8	27.7	42.1	23.3	6.9	6.6	0.3	567.9**
D. 나는 환경을 보존하는 제품에 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39.6	10.4	29.2	40.4	20.0	15.9	4.1	436.1**

주: *p<.05, **p<.01(x²-test 결과는 5점 척도 분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임).

〈표 4〉 사회지향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차이

항목	전체 사례수	성별			연령					남한 체류 기간				
		남자	여자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	5년이하	6~10년	10년 이상	F
		210	800		176	237	337	178	82		283	450	277	
A	3.50	3.59	3.48	1.78	3.24 (a)	3.44 (ab)	3.48 (bc)	3.70 (cd)	3.89 (d)	8.06**	3.55	3.47	3.50	0.46
B	3.18	3.26	3.15	2.06	3.22	3.13	3.17	3.25	3.09	0.63	3.23	3.16	3.15	0.53
C	3.90	3.84	3.92	1.21	3.93	3.90	3.93	3.85	3.83	0.41	3.94	3.90	3.86	0.53
D	3.26	3.49 (a)	3.20 (b)	14.3**	3.44 (a)	3.30 (ab)	3.18 (b)	3.31 (ab)	2.96 (c)	4.07**	3.36	3.20	3.25	2.51

주: 1) +A-F는 테이블 1-1에 있는 항목을 의미함. 평균값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2) *p<.05, **p<.01(각 인구통계학적 변인 내의 그룹별 차이는 Duncan Test를 이용한 Posthoc Analysis의 결과임. 그룹 간 비교의 전체 유의수준을 5%로 유지한 상황에서 동일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상이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의 평균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표시함).

다. 가족지향성

가족지향성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사랑, 부모자식 간의 부양 의무, 그리고 희생의 측면을 4개 문항으로 살펴보았다(표 5 참조). 가족지향성 항목 중에서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96% 동의: 문항 A), 나머지 항목들에도 7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여 탈북민들의 가족지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들의 가족지향성은 다른 어떤 가치관 성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과정에서 겪게 된 이산가족의 아픔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해석된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간에는 일률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가족 간의 사랑은 여성이(문항 A), 가족 간의 희생은 남성이(문항 D)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그룹의

<표 5> 가치관: 가족지향성

항목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A.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96.0	76.7	19.3	3.5	0.5	0.5	-	1524.3**
B. 자녀들은 부모들의 노후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75.3	38.5	36.8	17.7	6.9	5.8	1.1	600.6**
C. 부모는 자식들에게 최상의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74.6	37.4	37.1	19.0	6.4	6.1	0.3	595.1**
D.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76.7	37.1	39.6	19.4	3.9	3.2	0.7	673.7**

주: *p<.05, **p<.01(x2-test 결과는 5점 척도 분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임).

<표 6> 가족지향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차이

항목	전체 사례수	성별			연령						남한 체류 기간			
		남자	여자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	5년 이하	6~10년	10년 이상	F
		210	800		176	237	337	178	82		283	450	277	
A	4.72	4.65 (a)	4.74 (b)	4.40*	4.65 (a)	4.73 (ab)	4.78 (b)	4.62 (a)	4.82 (b)	3.86**	4.76	4.70	4.72	1.03
B	4.06	4.10	4.05	0.64	4.24 (ab)	4.05 (bc)	3.90 (c)	4.08 (bc)	4.30 (a)	5.61**	4.27 (a)	3.97 (b)	3.99 (b)	9.63**
C	4.05	4.14	4.03	2.33	3.96 (a)	4.07 (a)	4.01 (a)	4.09 (a)	4.30 (b)	2.45*	4.17 (a)	4.02 (b)	3.97 (b)	3.70*
D	4.09	4.24 (b)	4.05 (a)	8.02**	3.98 (a)	4.00 (a)	4.11 (a)	4.15 (a)	4.40 (b)	4.34**	4.16	4.07	4.06	1.16

주: 1) A-F는 테이블 1-1에 있는 항목을 의미함. 평균값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2) *p<.05, **p<.01(각 인구통계학적 변인 내의 그룹별 차이는 Duncan Test를 이용한 Posthoc Analysis의 결과임. 그룹 간 비교의 전체 유의수준을 5%로 유지한 상황에서 동일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상이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의 평균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표시함).

가족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부모자식 간의 부양 의무에 대한 의식은 남한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라. 전통지향성

전통지향성에서는 생활에서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유지 여부(명절과 절기 및 생활의 모든 면), 이혼, 그리고 혼인 전 동거에 대한 인식을 4개 문항으로 살펴보았다(표 7 참조). 전통 유지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이고 선별적인 우리의 고유의 명절과 절기를 지키는 점에는 많은 탈북민들이 동의하였으며(70.8% 동의: 문항 A),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약 절반 정도가 동의하였다(54.6% 동의: 문항 B). 반면에 이혼 및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매우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7%: 문항 C, 32.6%: 문항 D). 이는 탈북민들이 전통유지 의식은 높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이혼 및 혼전동거 등과 같은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전통유지 성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으며, 남한 체류 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이혼의 수용성 측면에서만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7〉 가치관: 전통지향성

항목				보통이다				χ^2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명절과 절기 등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켜져야 한다.	70.8	28.7	42.1	23.0	6.2	5.7	0.5	583.8**
B. 나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지키려고 하는 편이다.	54.6	15.5	39.0	32.4	13.1	11.1	2.0	473.9**
C. 이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34.7	14.4	20.3	26.1	39.2	26.7	12.5	86.6**
D.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32.6	11.7	20.9	27.8	39.6	28.7	10.9	146.5**

주: *p<.05, **p<.01(x²-test 결과는 5점 척도 분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임).

〈표 8〉 전통지향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차이

항목	전체 사례수	성별			연령					남한 체류기간				
		남자	여자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	5년 이하	6~ 10년	10년 이상	F
		210	800		176	237	337	178	82		283	450	277	
A	3.93	3.99	3.91	1.13	3.68 (a)	3.81 (ab)	4.02 (c)	3.97 (bc)	4.35 (d)	10.7**	4.01	3.88	3.92	1.90
B	3.55	3.57	3.55	0.13	3.32 (a)	3.42 (ab)	3.57 (bc)	3.70 (c)	4.01 (d)	10.1**	3.56	3.56	3.53	0.12
C	2.97	3.19 (a)	2.92 (b)	8.16**	2.92 (a)	2.92 (a)	2.87 (a)	3.11 (ab)	3.38 (b)	3.56**	3.03	2.96	2.93	0.49
D	2.94	3.00	2.92	0.86	2.77 (ab)	2.64 (a)	2.98 (bc)	3.11 (c)	3.63 (d)	13.4**	2.95	2.91	2.96	0.18

주: 1) A-F는 테이블 1-1에 있는 항목을 의미함. 평균값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2) *p<.05, **p<.01(각 인구통계학적 변인 내의 그룹별 차이는 Duncan Test를 이용한 Posthoc Analysis의 결과임. 그룹 간 비교의 전체 유의수준을 5%로 유지한 상황에서 동일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상이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의 평균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표시함).

마. 창의혁신성

창의혁신성은 기회의 활용,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새로운 자극 및 변화에 대한 선호도 등의 측면에 대하여 5가지 문항으로 살펴보았다(표 9 참조). 탈북민들은 높은 기회 활용 성향을 보였으나(72.0% 동의: 문항 A), 기회 활용을 위한 위험감수성은 낮게 나타났다(43.5% 동의: 문항 B). 창의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자극에 대한 선호도는 절반 이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61.4% 동의: 문항 C, 52.3% 동의: 문항 D). 제품의 조기수용성(early adoption)을 물어본 문항 E에 대해서는 약 22%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제품 수용 상황의 평균 수준인 약 16%와 비교해볼 때(Rogers, 1962; McDonald, Corkindale, and Sharp, 2003) 탈북민들의 제품의 조기수용성은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탈북민들의 창의혁신성은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점이다. 예컨대 탈북민들은 높은 기회활용 성향과 창의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자극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기회 활용을 위한 위험부담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새로운 삶을 찾아 탈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위험과 불확실했던 상황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심리상태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창의혁신성의 경우 모든 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연령도 창의혁신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연령이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남한 체류 기간 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한 입국 초기(5년 이내)에 창의혁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초기의 높은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시간이 지나 남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9〉 가치관: 창의혁신성

항목				보통이다				χ^2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나는 좋은 기회를 발견하면 대부분 이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2.0	24.1	47.9	23.0	5.0	5.0	0.1	720.8**
B. 나는 기회가 좋다고 판단되면 높은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는 편이다.	43.5	13.1	30.4	33.1	23.5	18.5	5.0	280.5**
C. 나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편이다.	61.4	17.6	43.8	33.2	5.4	5.2	0.2	683.4**
D. 나는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좋아한다.	52.3	16.1	36.1	33.9	13.9	12.8	1.1	443.0**
E. 나는 주위 사람들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다.	22.0	3.8	18.2	37.4	40.6	30.5	10.1	393.2**

주: *p<.05, **p<.01(x²-test 결과는 5점 척도 분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임).

〈표 10〉 창의혁신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차이

항목	전체 사례수	성별			연령						남한 체류 기간			
		남자	여자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	5년 이하	6~ 10년	10년 이상	F
		210	800		176	237	337	178	82		283	450	277	
A	3.91	4.08 (a)	3.87 (b)	11.2**	4.08 (a)	3.99 (ab)	3.89 (b)	3.80 (bc)	3.63 (c)	5.67**	4.04 (a)	3.85 (b)	3.87 (b)	5.02**
B	3.28	3.63 (a)	3.19 (b)	29.1**	3.59 (a)	3.31 (b)	3.17 (b)	3.25 (b)	3.06 (b)	5.68**	3.48 (a)	3.21 (b)	3.19 (b)	7.26**
C	3.73	3.97 (a)	3.67 (b)	22.1**	3.72	3.76	3.77	3.74	3.51	1.80	3.82	3.69	3.72	2.51
D	3.53	3.75 (a)	3.48 (b)	14.3**	3.80 (a)	3.63 (ab)	3.44 (bc)	3.41 (c)	3.34 (c)	6.67**	3.66 (a)	3.46 (b)	3.52 (ab)	3.82*
E	2.75	3.09 (a)	2.66 (b)	31.3**	2.97 (a)	2.74 (ab)	2.63 (b)	2.76 (ab)	2.80 (ab)	3.52**	2.86	2.71	2.71	2.35

주: 1) A-F는 테이블 1-1에 있는 항목을 의미함. 평균값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2) *p<.05, **p<.01(각 인구통계학적 변인 내의 그룹별 차이는 Duncan Test를 이용한 Posthoc Analysis의 결과임. 그룹 간 비교의 전체 유의수준을 5%로 유지한 상황에서 동일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상이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의 평균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표시함).

바. 물질추구성

물질추구성에서는 물질의 중요성 및 소유욕에 대하여 5가지 문항으로 살펴보았다(표 11 참조). 돈의 전지전능한 수단성 및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는 탈북민들의 절반 정도가 동의하였다(54.8% 동의: 문항 A, 55.5% 동의: 문항 B).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물건의 소유욕은 절반 이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8.6% 동의: 문항 C), 특히 유명 브랜드의 소유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16.6% 동의: 문항 E) 전반적인 수준에서 탈북민의 물질추구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볼 때(표 12 참조), 물질추구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유명 브랜드의 소유욕은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는 60대 이상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돈의 전지전능한 수단성에 대해서 높게 인정하는 동시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브랜드 선호도는 20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한 체류 기간도 물질추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물질의 소유욕, 그리고 유명 브랜드 선호도는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정착 생활을 오래하면서 경제적인 물질을 얻어가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표 11〉 가치관: 물질추구성

항목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A. 돈이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4.8	13.8	41.0	23.0	22.3	18.4	3.9	379.3**
B.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55.5	19.6	35.9	29.6	14.9	12.6	2.3	361.4**
C.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고 싶다.	48.6	16.6	32.0	32.8	18.6	15.3	3.3	312.9**
D. 나는 가능하면 많은 것을 갖지 않는 소박한 삶을 살고 싶다.	44.6	11.7	32.9	37.5	17.9	14.9	3.1	431.8**
E. 나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명 브랜드를 찾는 편이다.	16.6	3.3	13.4	26.6	56.7	35.8	20.9	312.9**

주: *p<.05, **p<.01(x²-test 결과는 5점 척도 분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임).

〈표 12〉 물질추구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차이

항목	전체 사례수	성별			연령						남한 체류기간			
		남자	여자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	5년 이하	6~ 10년	10년 이상	F
		210	800		176	237	337	178	82		283	450	277	
A	3.24	3.38	3.44	0.43	3.29 (a)	3.50 (a)	3.32 (a)	3.49 (a)	3.78 (b)	4.43**	3.44	3.44	3.39	0.24
B	3.58	3.62	3.57	0.49	3.59	3.69	3.58	3.48	3.43	1.61	3.71 (a)	3.56 (ab)	3.49 (b)	3.50*
C	3.43	3.55	3.40	3.19	3.56	3.53	3.38	3.31	3.35	2.14	3.57 (a)	3.44 (a)	3.28 (b)	5.41**
D	3.35	3.32	3.36	0.23	3.21 (a)	3.27 (ab)	3.40 (ab)	3.44 (b)	3.50 (b)	2.39*	3.43	3.30	3.36	1.72
E	2.42	2.70 (a)	2.35 (b)	19.1**	2.65 (a)	2.32 (b)	2.34 (b)	2.52 (ab)	2.37 (b)	3.69**	2.55 (a)	2.44 (a)	2.27 (b)	5.04**

주: 1) A-F는 테이블 1-1에 있는 항목을 의미함. 평균값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2) *p<.05, **p<.01(각 인구통계학적 변인 내의 그룹별 차이는 Duncan Test를 이용한 Posthoc Analysis의 결과임. 그룹 간 비교의 전체 유의수준을 5%로 유지한 상황에서 동일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상이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의 평균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표시함).

2-2.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성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도는 체제수준, 사회수준, 그리고 개인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표 13 참조). 먼저 체제수준의 적응성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지지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탈북민들의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도는 71.4%로 어느 정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문항 B), 지지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주의의 57.5% 지지: 문항 A, 자본주의의 59.3% 지지: 문항 C).

사회수준의 적응성은 남한 사회 적응 시 겪게 되는 가치관, 언어, 그리고 편견에 대한 극복 여부로 살펴보았다. 탈북민들은 체제수준과 개인수준에 비하여 사회수준의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한주민들의 편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8.2%: 문항 F), 25.8%는 가치관의 혼란(문항 D)을 그리고 30.5%는 언어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항 E).

<표 13> 남한 사회 적응성

항목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A. 남한 입국 당시보다 민주주의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	57.5	18.6	38.9	31.9	10.6	8.2	2.4	479.8**
B. 남한 입국 당시보다 시장경제체제(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71.4	21.0	50.4	23.3	5.3	5.0	0.3	780.9**
C. 남한 입국 당시보다 시장경제체제(자본주의)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	59.3	18.2	41.1	35.0	5.8	5.0	0.8	639.7**
사회수준의 적응성(Mezo Level):								
D. 나는 탈북 이후 남한 사회의 가치관에 혼란을 느낀다.	25.8	4.6	21.3	35.0	39.2	31.0	8.2	365.2**
E. 남한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0.5	7.4	23.1	34.7	34.9	26.4	8.4	281.7**
F.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이 있다.	58.2	14.6	43.7	30.1	11.7	9.8	1.9	567.5**
개인수준의 적응성(Micro Level):								
G. 남한 입국 당시보다 남한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64.2	25.5	38.6	30.0	5.9	5.0	0.9	539.7**
H. 남한 입국 당시보다 자신감이 더 증가하게 되었다.	63.3	20.5	42.8	29.3	7.4	6.3	1.1	580.6**
I. 남한 입국 당시보다 더 행복해졌다.	60.8	21.3	39.5	30.4	8.8	6.1	2.7	496.1**

주: *p<.05, **p<.01(x2-test 결과는 5점 척도 분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임).

개인수준의 적응성은 남한 입국 이후 느끼게 된 남한 사회에 대한 개인수준의 감정적 반응 및 자신감의 변화로 살펴보았다. 남한 입국 이후 탈북민들의 개인수준의 감정적 호감은 64.2%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문항 G), 60.8%는 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했다(문항 I). 또한 63.3%가 자신감까지 증가하였다고 응답했다. 호감도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감소했다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개인수준의 적응성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표 14 참조), 성별은 적응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지지도 측면에서만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남한 체류 기간에 따른 명확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몇몇 측면에서는 체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적응성이 증가하기보다는 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도와 언어장벽 극복의 측면은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남한에 오래 살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 남한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경험한 결과인 것으로 추론된다.

〈표 14〉 남한 사회 적응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차이

항목	전체 사례수	성별			연령						남한 체류 기간			F
		남자	여자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	5년 이하	6~ 10년	10년 이상	
		210	800		176	237	337	178	82		283	450	277	
A	3.63	3.90 (a)	3.56 (b)	22.1 **	3.45 (a)	3.55 (ab)	3.70 (bc)	3.67 (b)	3.89 (c)	4.15 **	3.66	3.59	3.67	0.75
B	3.87	3.92	3.85	1.33	3.80	3.83	3.91	3.81	4.05	2.00	3.92	3.82	3.88	1.30
C	3.71	3.80	3.69	3.33	3.64	3.65	3.73	3.72	3.91	1.86	3.80 (a)	3.63 (b)	3.74 (ab)	3.71 *
D+	2.83	2.86	2.82	0.20	2.77 (ab)	2.70 (a)	2.88 (ab)	2.99 (b)	2.76 (a)	2.59 *	2.78	2.89	2.78	1.64
E+	2.95	2.87	2.97	1.50	2.68 (a)	2.83 (ab)	2.98 (bc)	3.15 (cd)	3.28 (d)	7.37 **	3.07 (a)	2.96 (ab)	2.80 (b)	4.83 **
F+	3.59	3.57	3.60	0.20	3.54	3.57	3.64	3.61	3.52	0.59	3.56	3.61	3.60	0.27
G	3.83	3.78	3.84	0.94	3.65 (a)	3.88 (ab)	3.79 (ab)	3.85 (ab)	4.20 (c)	5.68 **	3.91	3.77	3.85	2.28
H	3.75	3.76	3.75	0.01	3.70	3.73	3.76	3.69	4.02	2.34	3.80	3.72	3.76	0.85
I	3.71	3.71	3.70	0.02	3.59 (a)	3.76 (a)	3.64 (a)	3.75 (a)	3.98 (b)	3.03 *	3.65	3.71	3.76	0.83

주: 1) +A-는 테이블 1-1에 있는 항목을 의미함. 평균값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2) †는 높은 점수가 높은 적응성을 나타내도록 원래의 척도를 reverse coding한 평균 점수임.

3) *p<.05, **p<.01(각 인구통계학적 변인 내의 그룹별 차이는 Duncan Test를 이용한 Posthoc Analysis의 결과임. 그룹 간 비교의 전체 유의수준을 5%로 유지한 상황에서 동일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상이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의 평균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표시함).

2-3. 탈북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탈북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영역을 근거로 소득, 노동, 소비, 문화와 여가, 보건 및 주거 실태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표 15 참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만족이 32.4% 불만족이 13.6%로(문항 H), 삶의 만족도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 만족도는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38.8%)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환경(33.2%), 건강상태(25.3%), 문화와 여가활동(21.3%), 사회참여활동(21.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소득(16.9%)과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도(15.8%)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탈북민의 만족도 수준을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장 최근의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통계청, 2014; 2015), 탈북민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남한주민들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임을 살펴볼 수 있다(표 16 참조).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소득과 소비 생활 부분에서는 탈북민의 만족도가 약간 높은 편이고, 문화와 여가 생활 및 건강 면에서는 약간 낮은 차이를 보였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에 의한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남한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도 크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가 활동(문항 D)과 건강(문항 E) 측면의 만족도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문항 F) 측면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5〉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항목	만족			보통	불만족			χ^2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A. 현재 나의 소득	16.9	5.4	11.5	49.7	33.4	23.2	10.2	642.7**
B. 현재 나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 (의식주, 문화 생활 등 소비)	15.8	4.6	11.3	57.6	26.5	19.0	7.5	952.7**
C. 현재 나의 문화와 여가 생활	21.3	5.8	15.4	51.9	26.8	18.7	8.1	697.1**
D. 현재 나의 건강상태	25.3	5.6	19.7	42.1	32.6	19.5	13.1	374.6**
E. 평소 나의 사회참여활동 (단체 참여, 기부, 자원봉사 등)	21.0	5.5	15.4	62.2	16.8	11.3	5.5	1158.2**
F. 현재 나의 주거환경	33.2	9.7	23.5	49.1	17.7	12.5	5.2	626.0**
G. 전반적인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32.4	8.2	24.2	54.1	13.6	9.9	3.7	850.9**

주: *p<.05, **p<.01(x2-test 결과는 5점 척도 분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임)

〈표 16〉 탈북민과 남한주민 간의 삶에 대한 만족도 비교

항목	탈북민			남한주민 ²⁾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현재 나의 소득	16.9	49.7	33.4	11.4	42.3	46.3
현재 나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 (의식주, 문화 생활 등 소비)	15.8	57.6	26.5	13.9	48.1	38.1
현재 나의 문화와 여가 생활	21.3	51.9	26.8	26.0	48.9	25.1
현재 나의 건강상태 ¹⁾	33.9	36.2	29.9	48.7	36.2	15.2

주: 1) 건강상태는 만족-불만족 척도가 아니라 좋다-나쁘다 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비교한 것임.

2) 남한주민 조사 결과는 통계청의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와 201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에서 비교 가능한 결과만을 가져온 것임.

〈표 17〉 삶에 대한 만족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차이

항목	전체 사례수	성별			연령						남한 체류 기간			
		남자	여자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	5년 이하	6~ 10년	10년 이상	F
		210	800		176	237	337	178	82		283	450	277	
A	2.79	2.90	2.76	3.28	2.81	2.82	2.71	2.85	2.83	0.84	2.82	2.79	2.75	0.29
B	3.40	3.37	3.42	0.23	3.11	3.47	3.38	3.53	3.38	1.49	3.32	3.37	3.50	1.10
C	2.86	2.96	2.84	3.04	2.92	2.86	2.83	2.81	3.02	1.19	2.84	2.84	2.92	0.82
D	2.92	3.08 (a)	2.88 (b)	7.56**	3.18 (a)	2.90 (bc)	2.79 (c)	2.88 (bc)	3.07 (ab)	5.81**	2.95	2.91	2.91	0.14
E	2.85	3.13 (a)	2.78 (b)	18.9**	3.50 (a)	3.03 (b)	2.65 (c)	2.52 (c)	2.52 (c)	30.9**	2.89	2.87	2.79	0.73
F	3.04	3.07	3.04	0.24	3.28 (a)	3.05 (b)	3.01 (b)	2.94 (b)	2.87 (b)	5.18**	3.08	3.07	2.96	1.79
G	3.20	3.20	3.20	0.00	3.20	3.18	3.18	3.20	3.33	0.44	3.25	3.20	3.15	0.87
H	3.23	3.25	3.23	0.12	3.36	3.25	3.20	3.11	3.33	2.19	3.30	3.19	3.24	1.35

주: 1) +A-H는 테이블 1-1에 있는 항목을 의미함. 평균값은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의 평균값임.

2) *p<.05, **p<.01(각 인구통계학적 변인 내의 그룹별 차이는 Duncan Test를 이용한 Posthoc Analysis의 결과임. 그룹 간 비교의 전체 유의수준을 5%로 유지한 상황에서 동일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상이한 알파벳이 있는 그룹 간의 평균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표시함).

2-4. 탈북민의 가치관, 적응성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분석모델 및 분석방법

앞에서 살펴본 탈북민들의 가치관, 적응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가치관 변인을 선행변인(Antecedents)으로, 그리고 이들의 결과변인(Consequence)을 삶의 만족도로 하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가치관 변인은 세 가지 수준의 적응성(체제수준, 사회수준, 개인수준)과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치관 변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가정하였다. 적응성 변인은 세 수준 모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세 수준 간에는 macro로부터 micro한 수준으로 순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델을 설정하였다.

각 변인들과의 연관관계는, 앞에서 설정한 모델의 다중 경로관계 분석이 가능한 구조방정식 분석방법을 AMOS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관계설정 모델의 적합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χ^2 test 평가 결과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hi^2=2728.2$, $p<.00$), 추가적인 goodness-of-fit 지수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다(CCFI=.84, TLI=.82, RMSEA=.05). 따라서 제시된 관계 설정 모델은 가치관, 적응성, 그리고 만족도 간의 연관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모델임이 증명되었다.

나. 분석 결과

1) 가치관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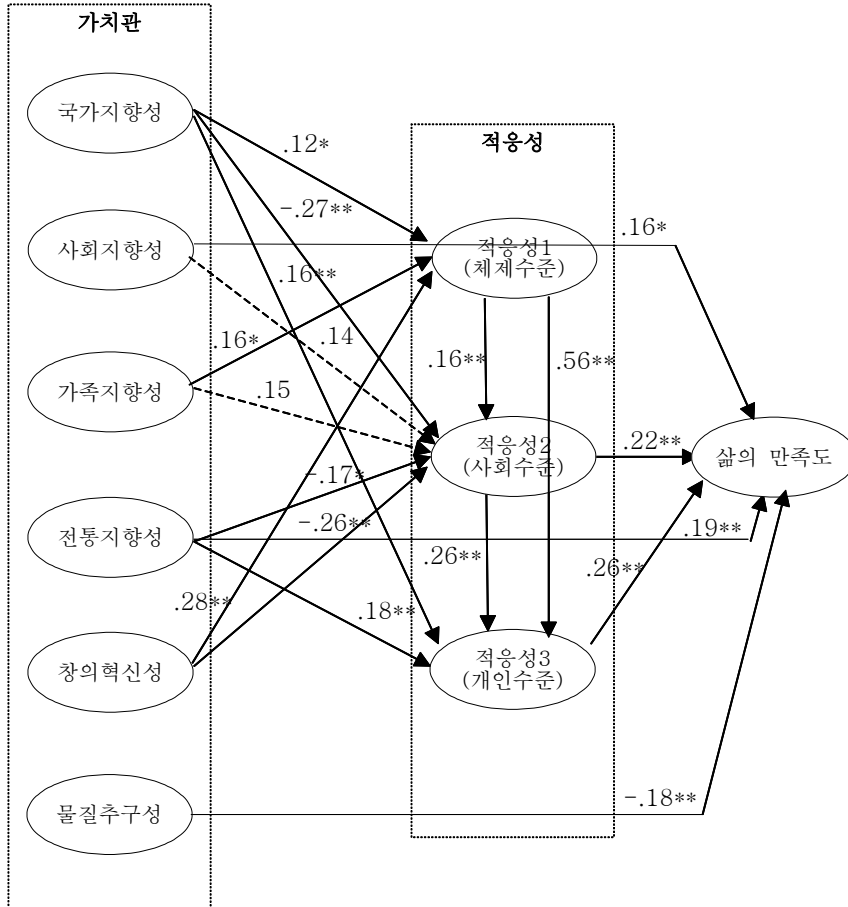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방법의 결과는 [그림 1]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민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적응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과 적응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요인들은 사회지향성(표준화 상관계수=.16, $p<.05$), 전통지향성(표준화 상관계수=.19, $p<.01$), 그리고 물질추구성(표준화 상관계수=-.18, $p<.01$)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향성이 높을수록, 전통지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물질추구성이 낮을수록 탈북민들의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물질추구성은 적응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없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치관과 적응성 간의 영향관계

물질추구성을 제외한 다른 가치관 요인들은 탈북민들의 적응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가지 수준의 적응성별로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요인들은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제수준의 적응성은 국가지향성(표준화 상관계수=.12, $p<.05$), 가족지향성(표준화 상관계수=.16, $p<.05$), 그리고 창의혁신성(표준화 상관계수=.28, $p<.01$)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 국가지향성이 높을수록, 가족지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수준의 창의혁신성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체제수준의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혁신성은 새로운 체제시스템의 수용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분석된다. 가족지향성의 영향력은 많은 탈북민들이 가족의 유지에 국가의 책임 및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결과로 유추된다.

사회수준의 적응성에는 국가지향성(표준화 상관계수=-.27, $p<.01$), 전통지향성(표준화 상관계수=-.17, $p<.05$), 그리고 창의혁신성(표준화 상관계수=-.26, $p<.01$)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가치관, 적응성, 만족도 간의 영향 경로 분석 결과



주: 1) *p<.05, **p<.01

2) 점선으로 표시된 관계는 유의수준 p<.10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로 그 영향력이 marginal한 수준임. 선이 표시되지 않은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음을 의미함(p>.10).

특이한 점은 그 영향의 방향이 역의 방향으로 나타나 국가지향성이 높을수록, 전통지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창의혁신성이 높을수록 사회수준의 적응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 교육 등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탈북민일수록(높은 국가지향성 및 전통지향성), 그리고 남한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성향이 높은 탈북민일수록(높은 창의혁신성) 사회수준의 적응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사회수준의 적응성이 체제나 개인수준에 비해 낮게 관찰되었던 점에 비춰 볼 때 향후 탈북민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개인수준의 적응성은 국가지향성이 높을수록(표준화 상관계수=.16, $p<.01$), 그리고 전통지향성이 높을수록(표준화 상관계수=.18, $p<.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적응성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탈북민들의 적응성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수준의 적응성(표준화계수=.22, $p<.01$)과 개인수준의 적응성(표준화 상관계수=.26, $p<.01$)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수준 및 개인수준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제수준의 적응성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사회수준(표준화 상관계수=.16, $p<.01$) 및 개인수준의 적응성(표준화 상관계수=.56, $p<.01$)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수준의 적응성은 다른 수준의 적응성에 영향을 미쳐 탈북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탈북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수준 및 개인수준의 적응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토론 및 정책제언

통일부는 “탈북민 3만 시대,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친근한 이웃으로 포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감은 올리고, 편견은 줄이고, 지원시스템은 효율화’라는 이전 탈북민 지원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정책 개선방안’에 의하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사회통합형’으로 전환하고, 크게 세 가지 — 탈북민 역할 제고, 인식개선과 포용, 맞춤형 중점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 — 의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인생설계(Life Plan Coaching) 및 선배 탈북민 정착경험 전수, 정착금 등 기초복지 강화 및 탈북민 포털 구축, 중앙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확대, 탈북청소년 통일리더 육성 및 제3국 출생 보호 강화, 1:1 결연 등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프로젝트 발굴·추진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개선방안’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차관급)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장관급)로 확대 개편하여 보호·정착에서 복지·통합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²⁾ 통일부의 이와 같은 ‘정책 개선방안’은

기존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와 성과를 반영하면서 새롭게 구성되고 제안된 프로그램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탈북민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탈북민의 가치관, 남한사회 적응성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진행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 내용은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에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탈북자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창의혁신성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창의혁신성은 남한에서 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념상 강고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럼에도 남한 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창의와 혁신성이 저하되고 모험을 택하는 성향 또한 감소한다는 것은 남한 정착 이후 삶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에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남한사회에서 삶의 조건 변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숙련도의 차이, 창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좌절과 금전적 타격을 경험하면서 점차 보수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착 지원 정책과 관련한 함의는 정착 시기와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재된 창의성과 모험 정신이 남한 사회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제공했던 기본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탈북민 집단을 (희망) 직종, 숙련도, 북한에서 종사했던 직종, 학력과 소득수준 등으로 세분화하여, 초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프로그램 제공에서 한 단계 나아가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 소재 기업과 서비스 업종 간 일자리와 구직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함께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체제, 사회, 개인 수준에서의 동화와 통합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탈북민의 대다수는, 국가와 남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탈북 전후 남한 사회에 대한 나름의 학습 과정이 있었고, 특히 하나원 등 초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 과정에서 남한 체제와 사회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탈북’에서 남한 사회로의 ‘정주 (settlement)’와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 체제 등 상위 구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부터 점차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지향성이 높게 나온 응답에 미루어 정착 지원 프로그램 중

2) 통일부, 「탈북민 3만 시대,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친근한 이웃으로 포용」, 보도자료, 2016. 11. 25.

가족단위 창업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소규모 가족단위 사업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범 사업을 선정 후 성공 사례는 공유하고 시행착오는 온-오프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체류기간이 늘어남에도 적응도와 만족도가 오히려 하락한다는 점은 보다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체류 기간과 사회적응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탈북의 경우 자발적 이민과 구별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한 사회 체류 기간과 적응도 및 만족도 수준이 반비례한다는 점은 탈북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면을 넘어서, 보다 구조적이고 상위의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탈북자와 유사한 남한 내 사회경제 집단과 비교를 통해 볼 때 탈북자들의 남한 내 체류 기간이 늘어날수록 만족도 수준이 남한 내 유사 사회경제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탈북민으로서 겪는 정체성 문제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취약에 노출된 이중의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예컨대 취업과 노동시장 편입의 불안정, 노동의 질과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의 어려움에 더해 탈북민들은 설령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직장 내 소통의 문제와 편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가 제안한 공공부문 채용 확대, 취업역량 강화, 자산형성제도 개선, 직장과 주거의 연계 강화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탈북민들의 기본 성향은 혁신과 모험을 회피하지는 않으나 이를 감수하고 기회로 활용하는 지점에서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 직전·후 표출되었던 성향이,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쟁과 탈락을 반복하며 박탈감과 자신감 상실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탈북민의 보편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도록 하되, 사회 일원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감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특히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과 적절한 금융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개발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탈북민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착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 등은 여러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통합기 북한 거주민들이나 이동 인구를 위한 좋은 경험으로 축적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탈북민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여러 자원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지출이 불가피한 사전 투입으로 인식하면서 관련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기획·집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2호, 2011, pp.129~153.
- 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 돌아보기: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의 맥락 Context 분석」,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12, pp.131~151.
- 김화순·최대석,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2011, pp.37~73.
- 남궁찬·김예란, 「여성 탈북민에 대한 감정경제: 여성 탈북민 출연 프로그램의 생산 및 수용의 회로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53집 제1호, 2016, pp.105~148.
- 남북하나재단, 『201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14.
- 박성재 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 및 취업지원제도 평가」, 『KLI 정책보고서』, 2011.
-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통일연구원, 2015.
- 박호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국제정치연구』, 제7집 2호, 2004, pp. 2-25.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 _____,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 선한승 외,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KLI 연구보고서』, 2005.
- 손애리·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19권 제3호, 2012, pp.5~34.
-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 향상 전략-난민과 이주민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2007, pp.173~197.
-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4-07, 2004.
- 윤여상, 「남북화해협력시대 북한이탈주민의 역할과 사회적응」,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pp.385~410.
-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오름, 1996.
- 전우택 외, 『통일 실험, 그 7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살이 패널연구』, 한울, 2010.
-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전우택·유시은·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2011, pp.1~35.
- 정정애·손영철·이정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13, pp.215~248.
- 정진화·손상희·이주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교육훈련과 취업」,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2013, pp.267~296.
- 최대석·박영자,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양적 성장을 넘어선 '성찰과 소통」, 『국제정치논총』, 제51권 제1호, 2011, pp.187~215.
- 최영아·이주용·김정규, 「남성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심리적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2009, pp.215~248.
-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2014.
- _____, 『201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2015.
- 통일부, 「탈북민 3만시대, 함께 통일을 열러가는 친근한 이웃으로 포용」, 보도자료, 2016. 11. 27.
- Kau, A. K., K. Jung, S. K. Tambayah, and S. J. Tan, *Understanding Singaporeans: Values, Lifestyles, Aspirations and Consumption Behaviors*,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2004.
- McDonald, H., David Corkindale, and Byron Sharp, “Behavioral versus Demographic Predictors of Early Adoption: A Critical Analysis and Comparative Tes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1(3), 2003, pp.84~95.
- Rogers, E. M., *The Diffusion of Innov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2.
- Stellmacher, J. and T. Petzel, “Authoritarianism as a Group Phenomenon,” *Political Psychology*, 26(2), 2005, pp.254~274.